

광주의 창

Gwangju Metropolitan City Magazine 2018 여름호 <통권 1호>

설렘과 긴장...광주세계수영대회
이용섭 신임광주시장 “일자리가 최우선”
북한 공훈화가들이 광주에 온다는데
광주차이나센터에 쏠린 관심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광주, 대한민국의 미래로!

“광주의 창을 통해 광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물론, 광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중국내에서 한국과 광주시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 광주의 참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The 1,000th Anniversary of
Jeolla Province's Foundation

2018 광주비엔날레 기념
Exhibition to Mark
Gwangju Biennale 2018

천년의 하늘

마종일 박경식 박종석 송필용 신창운
오상조 오윤석 유휴열 정정주 조광익
조재호 허달재 홍범

Millennial Heaven,
Millennial Earth

2018. 7. 6 - 11. 11

광주시립미술관 제 1, 2 전시실
Gwangju Museum of Art, Galleries 1, 2

천년의 땅

gma
광주시립미술관
Gwangju Museum of Art
61104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2
T. 062-613-7100 F. 062-613-7149 artmuse.gwangju.go.kr

CONTENTS

Gwangju Metropolitan City Magazine 2018



4 발행인의 편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6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앞둔 시민들
10 창간호 축하 쉰시엔위 주광주 중국총영사

광주시정

12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취임
21 광주 뉴스



광주비엔날레

26 남북교류 기대 부분 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차이나센터

32 광주광역시차이나센터 이모저모
37 대학생 서포터즈 12인의 다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40 아시아 문화의 플랫폼 ACC
46 인터뷰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

48 기고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한반도



표지사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저녁풍경.
이곳 분수대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이다.
※ 광주역행은 기간지이며 중문판으로도 발행됩니다.

발행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 편집인 조경완 광주광역시차이나센터장 - 제작 광주광역시차이나센터 - 중문번역 김령 홍익대학교수
61968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71 - 062)367-6688 - http://gwangjuccf.kr - 디자인 주드

광주와 손잡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4



중국을 향해 「광주의 창(窓)」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광주와 중국이 그동안의 신뢰를 기반으로 보다 큰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무척 기쁘고 설렙니다.

경계를 넘어 상생하는 일은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역사와 전통, 문화의 영역을 넘나들며 교류했던 한·중 간의 거리가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으며, 이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상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광주와 중국의 인연도 특별합니다. 중국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신중국 창건영웅 100인' 중 한 분인 정율성 선생님은 광주 출신의 음악가입니다. 우리는 그 분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기리며 기념음악제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애국심,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중국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본받아 광주시민들 또한 중국의 '다오평요우(老朋友)'(뜻 : 의미있는 오랜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로 인해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속에서도 광주와 중국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중국문화주간 행사, 공직자 연수 프로그램 등 활발한 교류활동과 함께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상해에 광주사무소도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11월 광주에 차이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가 보여준 진정성에 중국이 응답한 것이며, 추귀홍 주한중국대사님은 '이곳은 한·중 교류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대는 점차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차이나센터는 다양한 문화가 흐르고 사람이 오고가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돕는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광주의 창(窓)」을 통해 교류의 장은 더욱 넓어질 것이며, 우리의 시선은 현재를 넘어 미래로 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2015년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방문학자로 머물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중국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프로젝트는 중국의 빠른 변화와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팩스 차이나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전기차와 인공지능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상생의 힘은 위대합니다. 각자 도생하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보다 서로 경계를 넘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상생과 동반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친환경자동차산업과 에너지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주와 중국이 손잡으면 우리 후손들은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광주와 중국이 지혜와 힘을 모으면 더 큰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광주의 창(窓)」이 아시아의 창으로, 세계의 창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광주를 통해 대한민국을 보고, 세계를 보며, 미래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인들은 숫자 '8'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2018년 8월, 창간하는 「광주의 창(窓)」이 중국인들에게 더 반가운 까닭입니다.

앞으로 풍부하고 유익한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찾고싶고, 늘 보고싶은 잡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의 창**

5

설렘... 긴장... 그리고 자신감 내년 세계수영대회 앞둔 광주시민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 경험 최고 자산
수 조원대 경제효과, 광주서만 1만8천명 고용창출 기대

한국 서남부의 최대도시이자 한국에서 '호남'으로 불리는 평야지대의 중심도시 광주에는 지금 긴장과 설렘이 흐르고 있다. 지금부터 11개월 후 이 도시에서 벌어질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때문이다.

국제 스포츠계는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세계 5대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꼽는다. 대한민국 최초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전 세계 209개국 1만5천여 명이 참가한다. 국가대표들이 출전하는 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12일부터 28일까지(17일간),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대회는 8월 5일부터 18일까지(14일간) 광주와 남쪽 항구도시 여수에서 열린다.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지난 4년 동안 준비를 해온 광주시와 시민들은 과연 이 국제수준의 체육행사를 실수 없이 잘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긴장,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광주를 알리고 국제수준의 도시로 성큼 성장 할 수 있다는 설렘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은 순조롭다. 주 경기장이 될 남부대학교 수영장은 국제규격의 모든 시설을 이미 완성했고 크고 작은 국제경기를 테스트이벤트로 실시하고 있다. 시설과 수질, 계측시스템과 영상중계 시스템은 세계 최고수준을 입증했다. 선수촌 건설도 순조롭다.

지난 7월 7일 광주시는 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중의 하나인 조선대학교에서 대회 개막 D-1년을 앞둔 기념행사를 했다. 약 1천명의 시민이 모인 이날 행사에는 홀리오 마글리오네 세계수영연맹(FINA) 회장과 대표단, 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참석해 다양한 문화공연 이벤트를 관람했다. 조직위는 대회 개최 1년을 앞두고 대국민 축제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개최하고, 국내·외 각종 대회 및 주요 행사 현장 홍보, 대회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18회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학교 수영장 전경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마스코트는 광주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깨끗한 작은 강 광주천에 살고 있는 수달 암수한쌍 '수리'와 '달이'다. 조직위원회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슬로건을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고 정했다. 평화의 영단어 peace에는 의미가 있다.

이는 광주시가 수영선수권대회의 비전으로 ▲평화 속에 더불어 사는 인류(People) ▲자연의 숨결을 느끼는 환경(Environment) ▲미래의 꿈을 향한 힘찬 전진(Advance)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Culture) ▲지속가능한 지역경제(Economy)를 만들자는 'P·E·A·C·E'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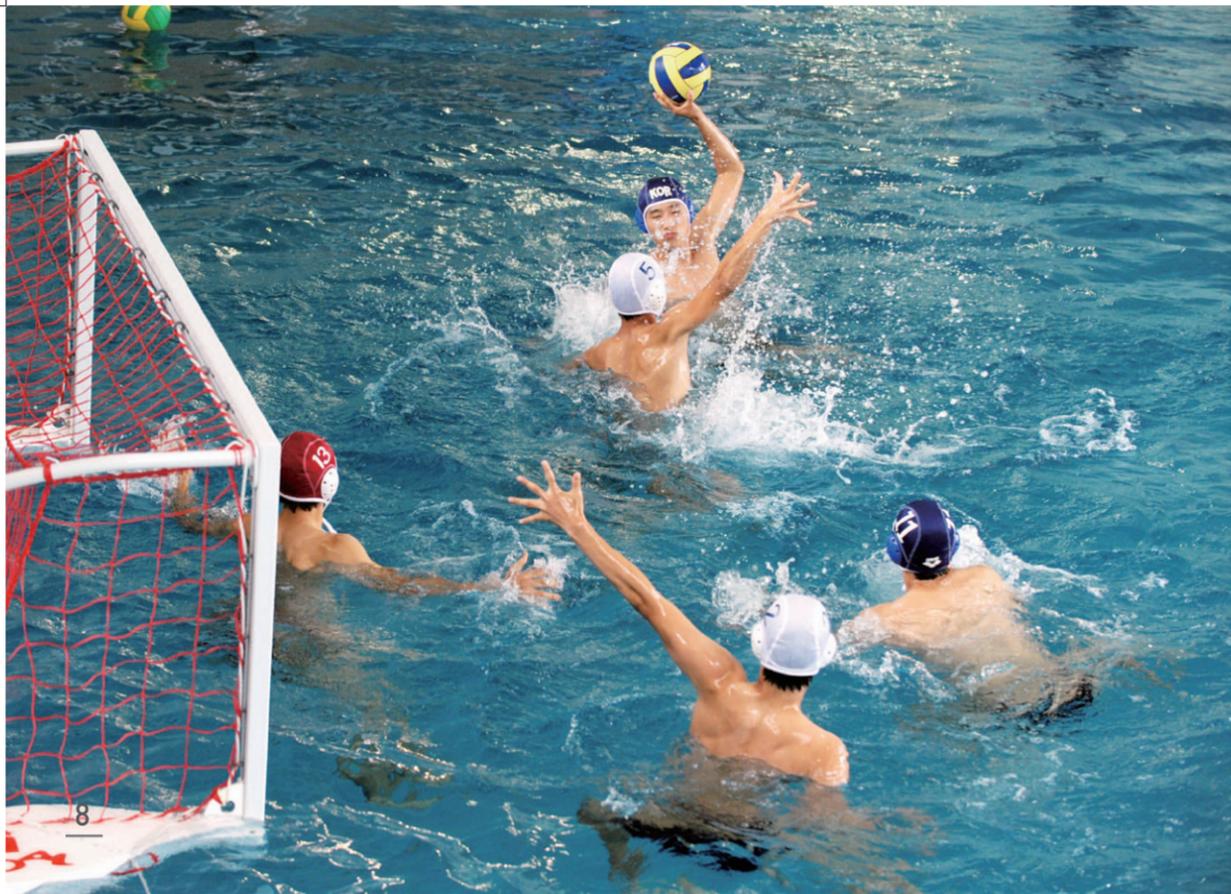
조직위원회는 정확히 개막 1년 전이 되는 7월 12일, 개막까지 남은 일수와 개최 날짜를 알려주는 카운트다운 알리판을 광주시청, 조직위 사무실, 광주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시립미술관, 문

화예술회관 등 광주시 산하 사업소, 대회 경기장 등 총 17곳에 설치했다.

조직위는 또 대회 D-300일 시점인 9월에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 인천·김포·무안공항 등에 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수리&달이'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긴장과 설렘은 걱정 보다는 자신감 쪽에 더 가깝다. 3년전 대규모의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멋지게 성공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그것이다.

3년전 여름, 세계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전염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많은 국제이벤트가 감염확산을 우려해 취소됐다. 수년간 공들여 세계대학생 체육축제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해온 광주시는 "철저한 예방과 검역으로 메르스 공포를 이겨내자"고 결정했고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수구경기장면, 광주시는 세계수영대회를 위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대회기간 단 한건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0여개국 1만3천명의 선수단은 도심에 재건축아파트로 새로 지어진 쾌적한 선수촌과 메인스타디움을 비롯한 훌륭한 경기장에 대만족을 표실했다.

무엇보다 2015년 하계U대회 성공의 일등 공신은 단연 '시민'이었다. 대회진행, 손님맞이의 중심에는 늘 시민이 있었다. 시민들은 적어도 2015년 여름동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시민이었다. 대회에 투입된 자원봉사자는 9314명은 86세의 노신사에서 13세의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통역봉사에는 미국에서 학업 중에 한결음에 달려온 유학생, 10년간의 외국생활 경험을 대회에 보태려는 어느 부부, 그리고 70년대 독일에 파견됐던 간호사, 심지어는 광주거주 외국인들도 저마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원봉사에 나섰다.

통·번역에 3464명, 경기에 1424명, 기술 101명, 행정 876명, 서비스 1675명, 의무 537명, 안전통제

177명, 개·폐막 291명, 도심 642명, 기타 127명 등이다. 이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폐회식에서 클로드 루이 갈리앙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은 "광주가 별이 됐다. 지워지지 않는 전설이 됐다"고 극찬했다. 2015년 광주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멋지게 치러냄으로써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렸다. 광주시민들은 그 기억과 경험이 있기에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또 한번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시에 훌륭한 기회다. 광주시 부속 싱크탱크인 광주발전연구원이 추산한 수영선수권대회 효과는 대단하다. 생산유발 효과 전국 2조 4천억원, 광주 1조 4천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전국 1조원 광주 6천500억원이다. 고용창출 효과도 광주 1만8천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만4천명의 고용이 예상된다. 마스터스 대회에 참가하는 수많은 수영 동호회원들과 가족이 일주일 안팎씩 광주에 머무르면 지역 관광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회 기간 전 세계 5억 1천만명이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하고 45억명이 언론을 통해 대회 소식을 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중국 상하이 대회 방송가치는 18조원대로 추정되기도 했다.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효과보다도 광주를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춘 도시로 격상시키는 이미지효과는 다른 어떤 효과와도 비교할 수 없다. 아시아문화중심 도시를 추구하는 광주의 콘텐츠를 문화와 스포츠를 결합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도 있다.

수영대회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 김치 축제, 청년축제, 프린지 페스티벌 등 광주의 문화 콘텐츠도 널리 홍보할 수 있다. 각종 미디어 노출로 인한 방송 홍보가치도 매우 커 대회를 통해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스포츠 선진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

광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지역의 주력사업인 자동차·친환경 차·가전·신재생에너지·광산업 등이 획기적인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폐막후 유니폼을 교환하는 각국 선수들. 광주U대회는 대성공이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메인 포스터

이제 하루하루 2019년 7월 12일을 향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기분좋은 긴장감과 설레임도 하루하루 더 커져가고 있다. **광주여왕**

초심을 기억하며 중·한 우호협력 새로운 장 열어주길

쑤시엔위(孫顯宇) 주광주 중국총영사



신록의 푸르름이 짙어지고, 매미 소리가 들려오는,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 여름입니다.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가 발행하는 계간지 창간호가 약속대로

출간되어 독자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주광주총영사관을 대표하여 차이나센터 계간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광주 각 계의 중한 우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광주차이나센터는 한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중한 우호 협력교류기관으로, 광주광역시와 중국주광주총영사관 및 한국 호남대학교의 공동 노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작년 중한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개소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며, 중한 양측이 광주와 중국 간 교류 협력 추진에 대한 중요성과 결의를 잘 구현해냈습니다. 이는 바로 중한우호의 상징이며 광주 및 중국 간 우호적인 상호신뢰와 협력발전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오랜 시간 중한우호 업무에 종사해왔기에, 저는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의 준비와 설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은 향후 저의 더 나은 업무를 위한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저는 2016년 5월 광주에 도착하여, 네 번째로 임명된 중국주광주총영사입니다. 광주에 온 후 저는 광주시 각 계에서 중국 우호 교류에 가지고 있는 소망과 열정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차이나센터가 이루어낸 모든 성과는 저에게 기쁨과 위안이 되었고, 향후 센터의 무궁한 발전에 대해 신념을 갖게 하여, 저는 광주지역과 중국 간 교류 및 협력의 밝은 전망에 대해서도 자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신감은 중한관계 발전의 견고한 기초와 힘찬 동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이웃 국가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친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한 양국 국민들은 우호교류 및 상부상조하는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한우호에 대한 미담 또한 넘쳐납니다.

특히 중한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전면적으로 깊이 있는 발전을 이루어 모든 분야별 교류 및 성과가 현저하게 나타났고, 이는 양국과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최대 유학생 원천국, 최대 해외 관광 목적지이며, 한국도 중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및 투자협력 파트너 중 한 국가입니다. '중국풍'과 '한류'는 서로 어우러져 각자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저의 자신감은 광주의 독특한 문화의 매력과 발전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한국의 제5대 도시로,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도시 건설, 경제건설, 과학기술혁신 및 문화산업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주는 문화적 소양이 높고, 인문적 관광자원 또한 풍부하여, 한국에서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이고, 한국에서 '예향', '미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오미'의 특색, 무등산국립공원, 양림동역사문화마을의 무한한 매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광주의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의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제고시킬 것입니다. 신임 이용섭 광주시장께서도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를 시정 비전으로 삼아, 광주시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 더욱 활기찬 도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의 자신감은 광주와 중국의 끊을 수 없는 인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께서는 2014년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발표하면서 '중국 인민 해방군 군가'의 작곡가 정율성 등 역사상 중한우호관계에 있어서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저의 자신감은 광주시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대중국 우호교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광주시는 대중국 우호교류 협력을 매우 중시하여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 각 지역과 경제 무역, 문화 교육, 청소년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 있는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광주시와 각 구는 이미 중국의 각 지역과 20여쌍의 자매우호교류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광주의 중국어 열풍이 지속적으로 가열되면서, 중국어 말하기 대회, 중국 노래 경연 대회, 중국 상식 대회 등이 개최되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중국 문화주간, 중국요리 축제, 정율성 음악회, 중한 서예교류 전시회, 중화민족원 풍채공연 등 다채로운 인문교류 행사가 연이어 개최됨으로써, 양국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시켰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 감정을 돈독히 하였습니다.

중국에 "먼 친척은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한국에도 "세 낚 주고 집 사고, 천 냥 주고 이웃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한 양국이 모두 이웃관계를 중요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이웃 국가와의 관계 발전은 중국 외교업무에서 시종일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시, 수교 25년 이래 우호교류와 협력상생은 시종일관 중한 관계의 바탕이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한국과 함께 양국 수교의 초심을 기억하면서, 양국 국민의 복지를 고려하여,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이웃간의 미덕을 견지하고, 호혜상생의 협력 취지를 파악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항상 건전하고 안정적인 수 있도록 올바른 발전 궤도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국을 방문하여 베이징대학교에서 강연시, 송나라 시인 왕안석의 시를 인용하여 "인생락재상지심", 즉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다"라며, 중한 양국 청년들이 상호 이해의 증진을 통해 양국 국민들 간의 대대적인 우호관계를 추진하기를 격려 하였습니다.

광주와 중국 간의 교류 협력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에 직면하여, 강화된 중한 협력관계가 가져온 기회를 잡고, 대중국 교류 협력의 경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깊이 있게 토론하며, 협력분야를 정확히 접목시키고, 협력 잠재력과 공통인식을 보다 확실하게 성과로 전환시켜,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중국주광주총영사관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중한 수교의 초심으로, 양국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한 지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광주와 중국의 교류 협력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며 더욱 심층적으로 발전시켜, 한국 친구분들과 함께 중한 우호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의창**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민선7기 광주 청사진 제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선언
“시민 삶 바꾸는 정의로운 일자리 경제시장” 천명

7월2일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이용섭시장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2018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광주시장에 당선된 이용섭 시장이 7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정례조회 형식의 약식취임식을 가졌다.

이 시장은 당초 시민과 공직자들이 참석하는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북상 중인 태풍 대비에 시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취임식을 취소하고 직원 정례조회로 대체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취임선서와 함께, 시정에 임하는 자세와 민선 7기가 그리는 광주 청사진을 PPT를 활용해 직접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민선 7기 광주비전과 7대 정책 방향, 3대 시정방침을 제시했다. 그는 “정의로운 역사로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광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광주,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광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태풍피해에 대비, 광주광역시청 직원정례회의로 취임식을 대신한 이용섭시장.

또 시장의 중심을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복원’에 두고 ‘정의로운 번영, 함께 나누는 풍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7대 정책 방향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시장 ▲소외와 차별이 없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광주다움 회복으로 사람과 돈, 기업이 모이는 광주 ▲4차 산업혁명시대 중심도시 ▲민주·인권·평화의 세계 중심도시 ▲운명공동체인 광주·전남의 번영 도모 ▲지방분권시대 차별화된 광주발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 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 정책 성공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혜택을 드리고,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4차산업혁명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자동차·전자·광산업·금융산업 등 광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을 융·복합하고 신기술을 접목시켜 사람과 기업, 돈이 몰려오는 광주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신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등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광주 고유함을 상품화·산업화해 일자리로 연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위해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점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던 5·18을 미래의 5·18로, 광주에 갇혀있던 5·18을 대한민국과 세계의 5·18로 확장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또 ‘혁신·소통·청렴’을 3대 시정방침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직자들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민권익을 위해 혁신할 것,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시민과 소통 할 것, 청렴을 통해 시민 신뢰를 확보할 것 등을 주문했다.

지역사회에도 참여와 통합을 호소했다. 그는 “시정에 적극 참여해주면 꿈이 현실이 될 것이나, 통합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황**

민선 7기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병훈씨 임명

문화 전문성, 다양한 행정경험, 일에 대한 열정이 발탁 배경
예산확보 능력 탁월, 행정·문화·정치·경제 통합적 시각 '적임자'

14

민선 7기 광주광역시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에 이병훈(61) 전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이 임명됐다.

이번 문화경제부시장 임명은 문화행정의 창의성, 전문성, 일관성을 높이고 통합적 시각에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광주가 문화적으로 디자인되고 구성되고 운영되며 문화가 일상이 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를 만들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7월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의 발탁 배경으로 문화에 대한 전문성, 다양한 중앙과 지방의 행정경험, 일에 대한 열정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문화경제부시장은 전남 보성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대통령 비서실, 전남 광양군수,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본부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제도 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등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친 풍부한 행정경험의 소유자다.

또한, 광양군수 시절 광양매실을 전국적 명품 브랜드로 키워냈고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당시 고흥우주

센터를 유치했으며, 정부합동청사를 광주로 오게 하는 등 광주·전남 발전을 이끈 지방행정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30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문화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열정을 인정받아 노무현 정부 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을 맡아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을 닦은 문화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주총괄선대본부장의 중책을 맡아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행정, 문화, 정치, 경제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 문화산업을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끌고 문화·경제 분야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광주의창**



광주광역시 수뇌부 3인 '역대급 엘리트'

이용섭 시장·이병훈 부시장·정종제 부시장 '행시'출신 화려한 경력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최하는 광주시청 수뇌부 왼쪽부터 정종제 행정부시장, 이용섭 시장, 이병훈 문화경제 부시장

광주광역시의 리더십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집단으로 구성돼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한국의 지방선거는 각 지방의 정치지도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사라지는 가혹한 시험장이다.

어느 지방에는 정치인이, 어느지방에서는 법률가가, 어느지방에서는 행정가나 기업인, 시민단체출신 사회운동가가 지도자로 당선돼 자신의 철학에 따라 지방을 이끈다.

지난 6월 당선된 행정가 출신 정치인 이용섭 시장은 자신을 보좌할 두명의 부시장에 한국 관료사회에서 전설적인 능력을 발휘해온 엘리트들을 임명했다. 한국의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할 전문 관료출신들의 포진이다.

한국에선 고급관료를 선발하는 '고시' 제도가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의 시장과 두명의 부시장은 모두 행정고시를 통과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을 해온 엘리트 관료들이다.

이용섭 시장은 전남대학교 최초로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김대중 정부 관세청장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국세청장, 청와대 비서관,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장관급인 일자리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차관급 3번, 장관급 3번, 국회의원 2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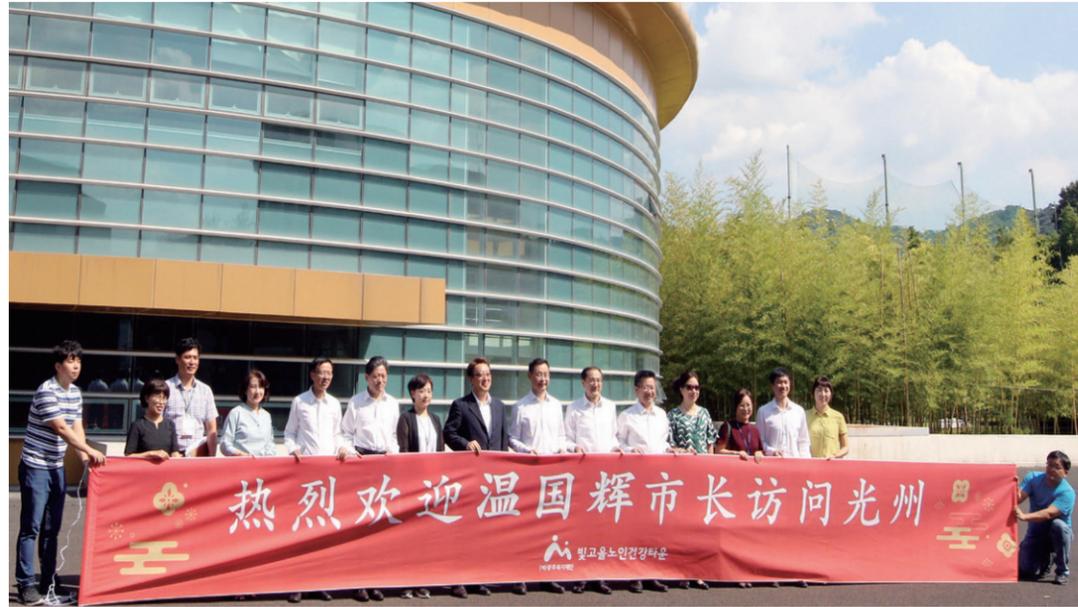
이병훈 문화경제 부시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거쳐 30대 후반에 전라남도 광양군수를 지냈다.

이어 전남도 기획관리실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본부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때는 문재인 후보 광주총괄선대본부장, 6월 지방선거 때는 이용섭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광주시 기획계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국장을 거쳐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실장을 역임했다.

이용섭·이병훈·정종제 트리오는 프로필만 놓고 보면 역대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청의 한 간부는 "행정의 밀도와 강도, 완성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 솔직히 긴장 된다"고 말했다. **광주의창**

15



16 원귀휘시장 일행을 환영하고있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관계자들. 원시장은 노인건강타운을 광저우에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말했다.

원귀휘 광저우시장 광주노인타운에 큰관심

지난 2일 광주광역시 방문, 이용섭시장과 자매도시 협력논의



“광주시 방문에서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광주 CGI센터 등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광저우시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10%를 초과하는 160만 명에 달합니다.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의 시설과 규

모에 놀랐습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벤치마킹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원귀휘(溫國輝·54)중국 광저우 시장이 지난 2일 광주시를 찾았다.

광주시장은 지난 2일 오후 시청에서 자매도시 중국 광저우시 원귀휘시장 등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간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원귀휘 중국 광저우 시장을 비롯해 리유바오춘 중국 광저우 외사관공실 주임, 쉰시엔위 주광주 중국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광기술원·테크노파크 등 둘러봐
수출상담회·세계수영선수권 등 협력 논의
정보기술, 청소년 교류확대도

원귀휘 시장(왼쪽)이 이용섭시장과 면담한 후 광저우 전통자수 액자를 선물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광주시와 중국 광저우시의 자매결연이 올해로 22년을 맞았다”며 “그 동안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중국의 저력과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광저우의 발전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 광저우에서도 많이 도와달라”며 “오는 9월 광주시 수출기업들과 함께 광저우를 방문해 지역 기업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수출상담회에 광저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지원 의사를 밝히는 한편 내년에 광주에서 열리는 ‘2019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광저우 수영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원귀휘 시장에게 요청했다.

원귀휘 시장은 “광주시와 광저우는 문화산업 등 여러 부문에서 협력해 왔는데 앞으로 투자, 무역, 관광 등 기초분야를 초월해 정보기술, 요양,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게 교류해 함께 발전했으면 한다”며 “9월광저우에서 진행되는 수출상담회에 지역 기업들이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고, 내년에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광저우 수영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저우 시장 방문단은 이날 면담에 앞서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광주CGI센터, 한국광기술원, 테크노파크 등을 방문해 광주시의 선진정책을 시찰했다.

한편 광주시와 중국 광저우시는 같은 도시이름을 가진 인연으로 1996년 자매 도시협정을 체결하고 대표단 상호 방문, 경제·문화교류 등을 해 왔다. **광주여정**



'제5회 광주MBC 정율성동요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광주 송원초등학교 합창단. 이들은 지난해 우승팀이다.

정율성 기릴 '동요경연대회' 열린다

광주MBC 주최 올해로 5년째...10개 초등학교 합창단 참가

'팔로군행진곡'(중국인민해방군행진곡)의 작곡자인 광주 출신 음악가 정율성(1918~1976) 선생의 삶과 음악을 기리기 위한 동요경연대회의 막이 오른다.

MBC광주문화방송은 어린이들이 음악을 통해 교류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5회 광주MBC 정율성동요경연대회'를 광주시·남구·광주시교육청·화순군 후원으로 20일 광주MBC TV 공개홀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예심을 통과한 광주 계림·살레시오·신창·양산·월산초등학교, 나주 남평초등학교, 화순 능주·제일·화순초등학교, 순천 풍덕초등학교 등 광주·전남지역 소재 초등학교 10개 합창단이 실력을 겨룬다.

음악을 통해 우정을 나누고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될 이번 대회 수상 팀에게는 광주시장상인 '정율성상'을 비롯해 주광주중국총영사상인 '특별상' 등이

수여된다.

특히 정율성상 수상 팀에게는 어린이 친선대사 자격으로 오는 9월 중순 중국 절강성 교류 공연 및 현지 학교 참관 등 기회가 주어진다.

광주MBC 관계자는 "어린이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정율성의 음악을 매개로 평화와 화합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율성은 일제 치하인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나 1933년 중국 남경으로 건너가 '연안송가' 등 360여 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그는 조선인이지만 국립묘지인 북경 팔보산 혁명열사릉에 묻히는 등 중국에서 음악적 업적을 인정받았다.

62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항일독립운동을 하면서 국가의 자존과 민족의 얼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쏟은 정율성은 광주가 낳은 시대의 선각자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이창**



푸젠성 취안저우시 전통예술단이 지난 7월 광주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공연을 했다.

갈채받은 취안저우시 예술단 광주공연



광주광역시, 요코하마시와 함께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된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의 전통예술단이 지난 7월 광주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공연을 해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포럼 초청으로 광주에 온 취안저우 예술단은 7월 6일 오후1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과 7일 오후7시 5·18 민주광장에서 남안시 고갑희극단의 푸젠성 전통극 '고갑희(高甲戏)'를 공연했다.

고갑희는 명나라 말 농촌을 무대로 주인공이 영웅

분장을 하고 액션동작을 선보이는 형태로 시작한 후 가장 대중적인 희극으로 발전해왔다. 고갑희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어릿광대들이 인생의 갖가지 희로애락을 연기하는 내용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남안시 고갑희극단은 1952년 창립된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종 경연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으며, 1996~1999년 중국정부(문화부)에서 지정한 전국 문화 사업 선진화 단체로 지정됐다. 이어 대형 사극과 현대 고갑희를 창작했다.

한편,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지난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한중일 삼국의 오랜 갈등과 반목을 도시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소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면서 2014년부터 매년 각국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 한 곳을 선정,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취안저우에서 9월 열리는 음악제에는 광주시의 정율성 동요제 우승팀이 참가한다. **광주이창**

쑨시엔위 총영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방

“한·중 실질적 교류 협력” 깊은 공감대



쑨시엔위 주 광주 중국총영사가 7월 11일 민선 7기 광주광역시의 이용섭 시장을 예방하고 보다 긴밀한 한중우호에 서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쑨 총영사는 이 시장 취임 열흘이 되는 날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하고 취임축하인사와 함께 광주광역시의 변함없는 중국 우호정책을 당부했다.

쑨 총영사는 “광주는 한국 중서부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앞으로 광주가 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시장님은 중국 방문경험이 있고 좋은 경험을 많이 갖고 있으므로 지지와 도움으로 양측 우호교류협력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머지않아 중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때마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0.5%p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나다. 한국의 미래가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중

국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를 정의롭고 풍요롭게 만들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호교류협력이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이시장은 또 “광저우 등 광주와 자매도시, 우호도시도 있는데 형식적 결연을 뛰어넘어 손 총영사님께서 광주에 계실 때 광주와 중국주요도시 간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됐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희망을 피력했다.

이시장은 이어 “구체적으로 중국과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 아직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달 말 휴가를 가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고민해보겠다. 총영사님과 저녁식사라도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쑨 총영사는 “시장님은 정치가이자 경제분야 전문가이시므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길 바란다. 함께 협력해 우호교류사업을 추진,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중국 광저우 시장이 8월 광주를 방문한다. 광저우는 중국 도시 중에서도 국가경제발전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는 도시다. 광저우와 광주시의 우호교류협력 추진을 깊게 연구해보겠다”고 답하고 “앞으로 임기가 최소 2년은 더 남았다. 그동안 관계가 좋았던 것을 이어 앞으로도 대중국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고 답했고 이시장은 “든든하다. 감사하다”며 악수한 손을 흔들었다.

쑨 총영사는 이날 중국 도자기 명산지 징더진(景德鎮)의 국가장인이 빚은 도자기를 우호의 선물로 이시장에게 전달했다. **광주의향**

광주의 상징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인증기념 국제지질 공원대회 대성황...인증동판 수여

광주의 상징 무등산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것을 기념하는 ‘유네스코 국제지질공원대회’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비전 선언문’ 발표식이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지질학자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비전 선포식을 통해 무등산권역 중심에 있는 광주와 담양·화순군이 아시아권역 세계지질공원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무등산권역 세계지질공원을 아시아문화전당, 5·18 사적지 등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해 광주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10개 국가지질공원의 홍보부스가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로비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부스별로 지질공원 홍보, 지질공원 특산물 전시, 지질교구재 경연, 지질교육 체험 등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어 한 곳에서 전국의 국가지질공원을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주, 청송, 무등산권 등 3개소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고 울릉도·독도, 부산 등 10개소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광주시와 담양군 전역, 화순군 일부를 포함한 1051.36km²의 규모이며, 지질명소는 무등산 정상 3봉(천·지·인왕봉), 서석대, 입석대, 화순 공룡화석지, 적벽 등 20개소, 역사문화명소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죽녹원 등 42개소가 있다. **광주이향**



광주 광의료기업, 말레이시아서 대규모 수출 계약

(주)메종 등 8개사 'Cosmobeaute Asia' 참가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7월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Cosmobeaute Asia 2018' 전시회에 광주지역 광의료기업 8개사가 참여해 1521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중국, 호주, 독일 등 전 세계 14개국 350여 개사가 참여해 광의료, 뷰티제품, 기기를 기업과 기업간(B2B), 기업과 소비자간(B2C)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광주시는 중소기업 브랜드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된 '광주공동관'을 마련하고, 광기술을 응용한 뷰티제품을 선보였다.

광주공동관을 통해 이번 전시에 참여한 광각작 코스메틱 제품 생산기업 (주)메종은 '에이에이비네쥬얼 뷰티'사와 5년간 1000만 달러, '티티싸우스컴퍼니' 사

와는 3년간 5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주)유니크메디케어는 말레이시아 '웨이리암코스토테크'사와 20만 달러 수출계약을, (주)에스비메디는 말레이시아 '에이아이오글로벌'사와 1만4000달러 수출계약을, (주)명신메디컬은 홍콩 '스킨키콘셉츄얼월드'사와 100만달러의 수출협약을 맺었다.

광주시는 이번 대규모 수출계약 성사를 계기로 향후 광기반 의료산업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정채된 광산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기존 광산업체의 제품 다각화 및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광기반 핵심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광의료산업 선도 기업 육성을 추진해왔다. **광주의창**

기후환경산업에 앞장서는 광주

제10회 국제전시회 · 수출상담 2744만달러 등 성과



43명의 해외바이어가 참여해 광주 소재 기업과 상담을 실시, 133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상담실적도 130건, 2744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광주환경산업협회와 MOU를 체결한 중국 상해환경보호산업협회는 올해도 산업전을 찾아 기업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기업인 케이아이에코시스템과 상해환경보호산업협회 회원사인 중국취강환경보호기술유한공사가 MOU를 체결, 중국 판로개척과 교류 확대 성과를 거뒀다. **광주의창**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7월11일부터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에서 133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7개국 140개사가 참여해 400부스가 운영된 이번 행사는 대기, 폐기물, 기후변화, 중국특별관 등 기후환경분야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환경산업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막일인 11일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2018세계청년축제' 열정 가득했다

7만여 명 방문...20개국 청년 다양한 프로그램 즐겨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린 '2018 세계청년축제'가 방문객수 7만여 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세계청년축제는 '청년은 하나다'를 주제로 2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각자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혹은 즐겁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공감하며 응원하는 장으로 펼쳐졌다. 먼저, 개막 첫날인 13일에는 이용섭 시장과 전국 청년협업체 정책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한 대구·울산·전남·대전 등 타 시도 청년들이 개막을 선언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개막 퍼포먼스 '청년, 100인의 삶을 노래하다'에서는 이 시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선보였다. **광주의창**



광주시청사 내 모든 미술품 QR코드 설명

모두 101점... 시청직원이 영상해설 재능기부



광주광역시시는 시청사에 전시된 미술작품을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QR코드 동영상 설명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QR코드 동영상 설명 서비스는 시청사 내 전시 미술품 101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동영상 설명자료와 QR코드를 연계해 관람객이 미술작품 앞에 게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작품의 영상해설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시나리오, 촬영, 편집, 작품 해설 등을 모두 광주시청 직원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진행해 예산을 절감했다. 또 시청 직원들이 직접 미술작품 해설자로 참여해 친근하게 작품을 설명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많은 작품들이 주변에 있지만 제대로 감상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시청에서 미술품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의창**

광주 창업청년들 중국서 판로개척

텐진에 LED제품 기업등 7개사 시장개척단 파견

광주광역시시는 수출초보 청년창업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중국 텐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시장개척단에는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7개의 신생 청년창업기업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이번에 참가한 기업 대부분이 시장개척활동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4개월여 동안 중국시장 조사, 기업설명 발표능력 향상 교육, 제품



샘플 및 홍보 책자 제작 등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개척단은 수출상담 62건과 수출 MOU 4건(총 1만8000달러)을 체결했다. 특히 참가기업 중 LED/OLED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랩'은 'TEDA'(텐진 경제기술개발구)로부터 우수한 기술이라는 호평을 받고 공장, 사무실 및 임대주택 등 중국 진출 발생 비용을 모두 제공하겠다는 러브콜을 받았다. **광주의향**

어지럽게 엉킨 도심 전깃줄 말끔히 정리한다

265억원 투입 2022년까지 완료

광주광역시시는 도시 미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9개 구역의 공중케이블을 정비한다.

정비 지역은 통신선이나 전력선 등 정비가 필요한 학교와 다중이용 시설 주변지역이며, 사업비 265억원은 통신사업자와 한전이 부담한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며, 지자체가 실태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협의회의 사업계획 확정, 정비사업자의 정비, 정비사업자와 지자체, 전파관리소의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중점 정비 대상은 전봇대에 심하게 얽혀 있거나 뭉쳐있는 전력선과 통신선, 전봇대에서 여러 방향으로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중케이블, 한 전주에 과다하게 설치된 통신설비, 전주에서 건물과 주택으로 설치된 복잡한 통신선, 과다하게 남겨진 여유선이다. **광주의향**

“개구리 논 지켜주세요” 초등학생 편지에 이시장 답장

“학생들 환경 관심 기특” 공무원 보내 보존계획 설명

7월 2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일동초등학교 4학년 3반 교실에 때 아닌 광주광역시 도로과 직원들이 나타나 학생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다음 아님 “북부순환도로 1공구 건설로부터 한새봉과 개구리 논을 보호해 달라”는 학생들 편지에 대한 이시장의 답장을 전하는 자리였다.

이 학교 4학년 3반 학생들은 지난 6월 가정에서의 토론과 사회과목 학습을 통해 “북부순환도로 건설로 인해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한새봉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후보자 신분인 이시장에게 보냈다.

이날 이용섭 시장은 답장을 통해 “학생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편지까지 보낸 것이 기특하다”며 “한새봉과 개구리 논을 아끼는 학생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광주의향**



유례없는 폭염, 시민들 건강을 지켜라

4개반 21명 비상근무 돌입...폭염 대응에 행정력 집중

광주광역시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7월 27일부터 긴급 폭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광주시의 이번 조치는 폭염특보가 연속 20여 일에 이르고, 태풍 등 특별한 기상변화가 없는 한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사실상 폭염 임계점에 도달해 시민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긴급 폭염안전대책본부는 시민안전실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반, 홍보지원팀, 건강관리반, 시설관리반 등 4개반으로 구성, 16개 폭염 관련 협업부서 21명이 교대로 비상근무를 한다. ▲상황관리반은 폭염 상황관리 총괄 및 추진상황 관리 ▲홍보지원팀은 폭염대처 행동요령 배포 ▲건강관리반은 폭염 피해현황 파악, 폭염구급대 운영, 폭염취약계층 보호 관리 ▲시설관리반은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 및 시설물 안전대책 등을 맡는다. **광주의향**





2016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모습

미술을 통한 한반도 평화 광주비엔날레에 거는 큰 기대

12회째 2018 광주비엔날레 9월 개막
북한 작품·작가 광주에... 미술계 이목집중



시작되면서 광주도시 전체에 국제미술축제의 들뜬 기운이 넘실대고 있다.

2018 광주비엔날레는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이란 주제로 43개국 165명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9월7일부터 11월11일까지 66일간 광주 비엔날레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

아시아 최대의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의 개막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전시관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시 곳곳에 참여작가들이 설치작업이

서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11명 큐레이터가 참여해 주제전을 비롯해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 해외 우수 미술기관 참여의 위성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7개 섹션에 걸쳐 전시가 선보인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부터 전시 작품에 대한 운송작업이 시작됐고 이달부터는 작가들이 광주에 머물며 작품제작과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24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국제 미술계가 주목하는 아시아 최대의 미술축제로 성장했다. 국제 미술계에서 한국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이벤트가 된 것은 물론,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의 현대미술 스타들이 세계 미술시장에 자신을 내보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광주시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올해의 광주비엔날레를 주목하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일찍부터 화제의 중심이 되고있는 '북한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 전시 때문이다.

이 민감한 전시를 담당하고있는 큐레이터는 미국에서 일찍이 북한미술을 전문으로 전시기획을 해온 문범강 조지타운대학 교수다. 문 교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9차례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한미술을 집요하게 연구해왔다.

지난 2016년 미국 워싱턴 아메리칸대학 미술관에서 문 교수가 기획한 조선미술전시는 미국 언론의 뜨거운 조명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번 광주비엔날레에 북한 작가들의 대형 집체화 5점을 포함해 북한 조선화 22점이 소개된다. 평양 만수대창작사에서 제

작된 작품으로, 조선화 분야에서 북한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최창호 인민예술가, 김인석 공훈예술가 등 32명이 참여했다. 북한 미술전에서 선보일 북측 미술 작품 22점은 8월말 항공편을 통해 광주에 반입될 예정이다.

김인석 공훈예술가는 평양미술대학 조선화 학부 출신으로 국가미술전람회에서 1등상을 3회 수상했다. 2001년부터 중국, 영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나미비아, 캄보디아 등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출품 될 그의 조선화 '소나기'는 동시대 북한 조선화의 참신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평양 시내의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소나기를 만난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해 밝고 명랑한 색채로 나날이 변천해가는 평양의 일상을 드러내고 있다.

2016 광주비엔날레 설치작품에 대해 도슨트의 설명을 듣고있는 관람객들



북한 공훈예술가 김인석 작 '소나기'

북한 인민예술가 최창호 작 '로동자'



최창호 인민예술가는 평양미술대학 조선화 학부를 졸업하고 국가미술전람회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수여했다. 조선화 분야 북한 최고 작가 중 한사람으로, 외곽선을 표시하지 않은 소위 '몰골기법'의 대가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중 이번에 광주에 전시되는 작품은 '로동자'로 고된 일상을 묵묵히 견디고 살아온 50대 북한 노동자의 모습을 통해 건강한 사회주의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화가들도 직접 광주에 온다. 비엔날레 재단은 이번 행사에 3명의 북한 작가를 초청하기로 하고 '조선민족화해협의회 베이징' 측에 제안서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민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전시에 열광하는 이유는 울들어 급속히 진행된 남북한간의 화해협력분위기 때문이다.

지난 9년간의 한국 보수정권은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단절하고 군사적 위기를 증폭시켜온 반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전면적 화해협력을 추진

하고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은 무의식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남북한 통일을 염원하면서 이번 북한미술전시도 통일을 위한 예술계의 실천노력으로 생각하고있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이번 북한미술전시는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미술로서 발견하고,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여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북한 미술 역시 한반도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기억해주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도시라는 점에 비추어 ‘광주정신’을 주제로한 전시도 관심이다. 이분야 전시에는 아드리안 비샤르 로하스(Adrián Villar Rojas), 마이크 넬슨(Mike Nelson), 카데르 아티아(Kader Attia), 아피차퐁 위라세타쿤(Apichatpong Weerasethakul)등의 스타작가들이 참여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국군광주병원에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랑스 태생 알제리인 부모를 둔 카데르 아티아는 7월 한달간 한국에 머무르며 영상 촬영을 마쳤다. 카데르 아티아는 개인적 삶의 터전인 프랑스와 이민자 2세로서 이질적인 문화 영역에 기반한 작품을 주로 선보이고 있다.

이민자와 혼합문화, 개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등이 그의 주요 소재이다. 카데르 아티아는 허물어진 오



난해하지만 기발하고 재미있는 광주비엔날레 전시작품들은 세계현대미술의 화제로 떠오른다.

래된 집에서 나온 25여 개 고목재 기둥으로 제작한 조각물과 영상을 중심으로 한 설치작업을 선보인다. 영상에는 광주민주화운동 생존자들이 겪고있는 트라우마를 현대적인 심리학과 전통적인 민속학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준다.

2018광주비엔날레 예매 입장권도 판매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개막 전인 9월 6일까지 예매입장권을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와 지정 판매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한다.

예매 입장권은 행사기간 내 현장 판매 입장권보다 30~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현장 판매는 어른 1만 4천원, 청소년 6천원, 어린이 4천원이지만 사전 예매할 경우 어른 1만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2천원으로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수도권 국민들과 해외 관람객 편의를 위해 광주비엔날레 입장권과 코레일 패키지 상품도 출시됐다.

광주비엔날레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을 맺고 전국 주요 23개 도시내 여행센터에서 KTX 열차표와 함께 비엔날레 입장권 패키지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광주역창**





광주엔 차이나센터가 있다

지자체 최초 한·중교류 촉진 기구 지난해 말 문을 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중 유일한 중국 우호촉진기구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가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광주 차이나센터는 서구 쌍촌동 공자아카데미 건물 1층 600여 평의 공간에 갤러리, 라운지, 다목적 홀, 강의실, 요리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150만 광주 시민들을 위한 중국문화공간으로 탄생했다.

차이나센터는 중국 문화행사, 민간 한중교류지원, 중국어 교육, 중국 문화체험, 소식지 발행 등 광주와 중국의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개소식에는 당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쉰시엔위

주 광주 중국총영사와 30여명의 귀빈,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차이나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추귀홍 대사는 개소식에 앞서 중국 관련 서적과 영상자료 1,500점을 차이나센터에 기증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은 차이나센터 설치와 관련해 긴밀히 협조해왔다. 중국 총영사관은 차이나센터에 전시품을 제공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차이나센터 운영 재원 등은 광주시가, 각종 도서와 자료 등 콘텐츠는 중국 측이 맡았다.

운영 위탁기관으로는 호남대학교가 선정됐으며 초대 센터장에는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경완 교수가 임명됐다. **광주의 창**

“광주가 중한관계 정상화 빠르게 했다”

차이나센터 개소식 참석 추귀홍 주한중국대사 축사 전문

존경하는 윤장현 시장님, 이은방 의장님, 내빈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님의 초청으로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과 주광주총영사관을 대표하여,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의 개소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중국에 관심을 두고, 지지해주시며 사랑해주시고, 또 중한 우호 사업에 힘써주시는 광주시 각계 우호 인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는 한국 서남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국문화의 수도”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고, 중한 양국 지방 간 우호 교류의 본보기가 되어주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윤장현 시장은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중시하고, “중국과 친해지기”정책을 시행하며,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광주시는 중국 지방의 각 분야의 우호 교류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풍성한 성과를 얻었고, 이를 매우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광주시 차이나센터의 개소는 중한 우호의 상징이며, 더 많은 광주시민이 중국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한 양국 지방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이 되어, 중한 양국의 우호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올해는 한중수교 25주년입니다. 25년 동안, 중한 각 분야의 우호 협력은 전면적이고 신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양

국이 각자 강력한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해 중요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양국의 공동 이익과 공동 언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나날이 운명 공동체, 책임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친구이거나, 한 가족이라도 의견이 맞지 않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도 발전해가는 과정 중에 이런저런 문제와 도전들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년, 사드 문제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매우 곤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양국의 공동노력으로 이 난관을 점진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 다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회의 기간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 함께 회견을 진행했고, 현재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여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양국의 고위급 교류 후에는 중한 관계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차이나센터 개소식을 개최하며, 중한관계가 정상궤도에 들어서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었습니다.

중한 관계에는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이 있고, 민심이라는 견실한 기초가 있으며, 또한, 함께 감당해야 할 많은 공동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중한관계의 내일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나센터 개소 기념 '한·중 도자교류전'

광주 차이나센터가 한국과 중국의 대표 도예 명인들의 작품을 광주시민들에 선보이는 '2017 한·중국제도자교류전'이 광주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는 11월 21일부터 열흘간 '2017 한·중국제도자교류전'을 개최하고 중국 경덕진 도예가 8명과 한국도자학회 도예명장 등의 조자기 작품 60여점을 전시했다. 광주 차이나센터 개소를 기념해 열린 있는 이 전시에는 모두 2천 800명의 시민이 한중 도자기예술의 정수가 한자리에 모인 아름다운 광경을 관람했다.





광주광역시의 자매도시인 광저우시 원귀휘시장(꽃다발 든 이)이 8월3일 광주광역시차이나센터 방문했다.

중국 주요인사들 광주차이나센터 방문 줄이어 장중화 주한중국문화원장, 원귀휘 광저우시장 등

한국 지방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설치된 중국 우호 협력기구인 광주 차이나 센터에 중국 주요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장중화(張中華) 주한중국문화원장은 지난 3월 15일 광주 차이나센터 방문해 한중 문화교류 및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작은사진)

이 자리에는 리샤오펑(李少鵬) 주한중국대사관 1등서기관, 조경완 광주차이나센터장, 박상백 광주광역시 국제교류담당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광주차이나센터의 주요 사업에 관한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장중화 주한중국문화원장은 “주한중국문화원은 중국정부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원한 중국문화원으로 주한중국문화원과 광주차이나센터는 문화 예술적 소양을 갖춘 중국전문가를 양성하고 한중 상호교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설립 취지가 일치한다”며 “광주차이나센터에 중국 문화콘텐츠 및 인적 물적 자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광저우시 외사관공실 투홍저(途宏哲) 부주임과 천제(陳潔) 처장, 왕루오첸(王若晨) 부처장 등 3명은 4월 23일 광주차이나센터 방문, 광저



우 시장의 차이나센터 방문을 사전답사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8월 3일 광주광역시의 오랜 자매도시인 중국 광저우시의 원귀휘(溫國輝) 시장과 광주광역시 방문단 일행 6명이 차이나센터 방문, 방문록에 휘호를 남기고 센터 시설을 둘러봤다.

원귀휘시장은 “광주광역시가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우정을 차이나센터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광저우시의 발전된 모습을 광주시민들이 많이 방문하여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귀휘 시장 일행이 차이나센터 둘러보는 동안 센터로비의 대형 모니터에는 광저우시의 지난 100년간 변화상을 다룬 영상물 ‘광부춘추(廣府春秋)’가 상영돼 원시장 일행의 큰 호감을 얻었다. **광주의향**



청소년 ‘중국문화체험교실’ 인기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는 지난 7월 25일, 광주경신여자고등학교 국제교류동아리 ‘생생언어동’ 소속의 학생들 10여명을 대상으로 ‘제1회 중국문화체험교실’을 실시했다. 이날 최세린 등 경신여고 학생들은 중국 전통의상인 ‘치파오’로 환복하고 중국 사진 전시관 및 센터 전시실을 참관했다. 또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 중국 전통 차(茶)의 역사와 예절을 배워보고 직접 중국 원어민 교사와 함께 차를 시음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차이나센터 ‘중국문화체험교실’은 광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문화 시청각 교육, 전통 의상 체험, 전통 차(茶) 시음 및 중국콘텐츠(영화·도서) 체험 등 각종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등 광주 지역 학생들이 중국문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어 교사 지원하는 차이나센터

광주차이나센터가 광주지역 중, 고교 중국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차이나센터는 지난 6월 11일 서구 상무대로 971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에서 광주지역 중국어교사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와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중국어교사 및 원어민교사 40여명이 참석한 이 워크숍에서는 중국어 교육 운영 역량 강화 방안 및 개선점을 토론했고 향후 광주차이나센터와의 업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차이나 무비 데이’ 시민 발길 늘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차이나센터에서 실시되는 ‘보고 듣고 말하는 차이나 무비 데이(中國電影節)’ 행사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차이나센터는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 30분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71 차이나센터 다목적 홀에서 제6차 차이나 무비 데이 행사에서 중국 드라마 ‘황제의 딸’로 유명한 배우 조우징(趙薇)의 감독 데뷔작 ‘우리가 잃어버린 청춘’을 상영했다. 영화 소개와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홈페이지(www.gwangjucc.kr)를 참조하거나 전화(062-383-8868/062-367-6688)로 문의하면 된다.



실버·청소년 중국어 무료강좌

광주 차이나센터가 실버세대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중국어 강좌를 개설했다. 지난 7월 14일 개강한 제1기 실버 중국어 강좌와 꿈나무 중국어 강좌에는 각각 10명씩의 수강생이 등록해 중국어 배우기의 즐거움에 빠져있다.

이번 강좌는 평소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관심이 있으나 쉽게 접할 기회가 없었던 광주 시민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으로, 광주 차이나센터에서 원어민 선생님의 지도로 10주간의 중국어 기초과정 공부를 마치게 된다. 교과서와 dvd 등 교재도 무료 제공된다. 차이나센터는 10월중 제2기 시민중국어 강좌를 개강할 예정이다.

한·중 교류 앞장선 열두명의 젊은 열정

광주차이나센터 대학생서포터즈 선발... 문화교류 가교역할
중국외교부도 홈페이지에 소개 "양국우호 한 발 더 나아갔다"



광주 차이나센터의 모든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는 대학생 서포터즈 12명이 선발돼 본격 활동중이다. 지난 5월 5일 차이나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조경완 센터장과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 장동영 이사, 장일범 이사 등 참석해 광주전남지역 6개 대학의 3~4학년 학생 13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들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경완 센터장은 "대학생 서포터즈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을 기대하며 앞으로 광주시민들이 중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이나센터 '제1기 한·중 대학생 서포터즈'는 60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지난 4월 20일 치열한 면접을 통해 선발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약 8개월간 각종 중국문화에술행사 진행과 안내, 온라인콘텐츠 제작·홍보(기사,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연말에는 우수활동 서포터즈를 선정해 광주광역

시장 표창을 시상한다.

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은 지난 6월 27일 이들 대학생 서포터즈들 전원을 총영사관에 초청, 영사관 업무를 소개하고 만찬을 베풀었다. 손시엔위 총영사는 "한·중 우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차이나센터 서포터즈 활동을 환영하며 앞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중국과 중국문화를 알리는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월 2일 공식 홈페이지 와이저아오푸(外交部, www.mfa.gov.cn)에 중국 총영사관을 방문한 차이나센터 서포터즈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이들이 "양국민의 우호를 한발자국 더 나아가게 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한국의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차이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 서포터즈들이 각종 한중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광주매장**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와이저아오푸(外交部, www.mfa.gov.cn)에 실린 광주차이나센터서포터즈들.



중국 문화 전파하는 소통자 역할 맡겠다

여진호(26세)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4년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는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입니다. 비록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서포터즈의 역할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작은 일이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없고 소통이 없는 사회는 척박하게 느껴지듯이 저는 이 서포터즈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중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중국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서포터즈의 모든활동은 내겐 소중한 경험

조승경(20세) 순천대학교 중어중문학과 3년



저는 중어중문학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중국과 중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경영학을 배우면서 마케팅, 홍보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관심요소를 두루 갖춘 한중대학생 서포터즈는 소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들에서 서포터즈분들과 센터 관계자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받으며 '한·중 서포터즈 활동은 매 순간을 기념하고 싶은 날'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 주고파

홍은설(19세)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1년



중국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교류하고 있는 것이 많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서로 배워야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사이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과 중국에 있는 한국인 즉 유학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중 서포터즈' 라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많은 중국인들과 교류하며 한국의 문화도 알려주고 싶고, 또 저 역시 중국인들에게 많은 중국문화를 배우면서 서로 한국과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중 서포터즈 1기 파이팅!!!

놀라운 중국문화와 경제 시민들에게 알릴터

신수용(22세)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3년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화교학교와 중국 유학생활동 경험을 해보았으며, 큰 땅덩어리인 중국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매번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바뀌어 있는 중국, 보다 더 발전해 있는 중국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저의 중국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만 갔습니다. 이에 제가 중국을 더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차이나 센터 서포터즈 1기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차이나 센터 서포터즈 1기인 만큼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호기심과 도전정신으로 한중우호 나서겠다

김주리(19세)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2년

먼저 차이나센터 서포터즈 1기로 활동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평소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무엇이든 새롭게 접할 수 있는 도전정신이 강한 편입니다. 차이나센터 서포터즈에 지원을 할 때에도 저에게 첫 대외활동이기 때문에 아주 큰 도전이라 여기며 간절하게 면접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막상 활동을 하다 보니 그 보다도 한국과 중국의 문화차이와 우호관계 등 더욱 세부적인 내용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서포터즈 활동기간 동안 중국에 대해 알아가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어 실력쌓고 다양한 경험 기대 커

박예진(20세) 광주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2년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중국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그런 와중 좋은 기회로 차이나 센터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기인 만큼 차이나 센터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중국과 중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첫 대외활동인데 다른 서포터즈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대학생활에서 하나의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의 열정 잃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중국문화 우수성 홍보하는데 큰 책임 느껴

이우철(24세) 동신대학교 물리치료학과 4년

저의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다짐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홍보하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있으며 이 활동함에 있어 조금 더 나를 낮추어 쉽고 친근하게 뭐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저 개인으로 알아가는 것보다 저의 조원, 또는 서포터즈 인원들과 함께 활동을 한다면 서로 좋은 피드백을 통해서 모두 발전 할 수 있고 여기서 만난 인연이 앞으로도 서포터즈 활동이 끝나더라도 모두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간 중국공부에 쏟은 열정 살려 활약 할 것

송이영(23세)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4년

중어중문학과를 재학한 4년과 길림, 상해를 거친 중국으로의 교환학생 1년, 장장 5년 동안 중국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가면서 중국과 한국을 위한 뜻깊은 활동을 하고 싶다는 동기가 크게 일었습니다. 아직 학생인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인 반면,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서포터즈로서 다양한 한중 문화 홍보지원 활동과 차이나센터를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지금 당장의 성과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1기를 거쳐 2기, 3기 거듭해 나갈수록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의 역할이 한중 우호 교류에 큰 뿌리가 되는 것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중국친구들 한국 이해 도와주고 싶어

안소정(22세) 조선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4년

어렸을 때 부모님의 권유로 중국 위하에서 2년간 유학생생활을 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또한, 대학생활을 하면서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은 광주 생활에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중국 친구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광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잘 해내겠습니다.

상하이 발전에 큰 자극받아 중국문화 매료

유재원(25세)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년

몇 해 전, 저희 학교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상해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국 전까지도 중국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공항에 내려서부터 도시를 가로지르는 자기부상열차, 잘 보존된 역사적 건물들과 높은 빌딩의 멋진 스카이라인이 공존하는 모습은 제가 얼마나 우물 안에 갇혀 있었는지 알려주는 듯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엔 중국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졌고, 대학생의 신분으로 한국과 중국이라는 국가 사이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내고 싶어 서포터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재광 중국인들에게 먼저 다가 가겠다

임채혁(26세)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4년

학교를 다니며 외국인 친구들과 많은 교류를 하며 느꼈던 점은 다들 유학생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유학생생활을 해보았기에 더욱 그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주위의 유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이야기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가능하다면 그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차이나센터 서포터즈' 활동은 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현장에서의 경험통해 자아실현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문화 배우며 성장 하고파

최연희(21세) 조선대학교 법학과 4년

여행을 좋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고, sns로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쳐주면서 소통하다보니 국제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국친구를 저희 집에 초대해 같이 지내면서 바로 옆 나라지만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또 비슷하네?라며 놀란적이 있어 더더욱 중국문화에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중국어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 나라의 언어를 보면 문화를 알수있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서포터즈를 통해서 중국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놀랍도록 다양한 아시아의 문화와 예술 보존과 재창조 위한 광주의 위대한 도전

‘아시아문화의 플랫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오늘과 내일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경

40

아시아는 다양한 문화, 역사, 예술, 설화를 갖고 있다. 이런 문화 콘텐츠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자주 활용됐다. 1998년 미국의 월트디즈니사가 제작한 만화영화 톨란은 중국 남북조시대 서사시 ‘목란사’가 원조다. 목란사는 아버지를 대신해 전장에 나가 맹 활약하는 남장 여전사 이야기다. 영화 아바타는 하체가 마비된 남자 주인공이 자신

의 화신을 이용해 행성 판도라의 토착민 나비족과 어울리게 되는 줄거리다. 영화 제목 아바타는 분신이라는 뜻으로 산스크리트어 아바타라(avataara)에서 유래했다. 힌두교의 아바타 사상은 신의 개념으로 ‘내려온 자’라는 의미가 있다. 문화학자들은 힌두교 신인 비슈누의 10대 분신에 대한 이야기를 원조 아바타라고 해석한다.

아시아 문화는 다양성 못지않게 동질성도 있다. 동질성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콩쥐팥쥐 이야기다. 한국에서 콩쥐팥쥐로 알려지는 계모 설화는 중국, 이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도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말인 켄타우로스 등 반인반수(半人半獸)는 아시아 신화(사전)에서도 등장한다. 그리스 로마신화처럼 잘 정리되지 않았을 뿐 아시아에는 수많은 신

아문화전당(Asian Culture Center:ACC)이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7000여억원이 투입된 아시아문화전당은 부지 13만4815㎡, 건물면적 16만1237㎡ 규모다. 수도인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박물관보다 크고 넓다. 홍콩의 서구룡 예술지구보다도 큰 규모다. 이곳에 예술극장,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등 5개 원(院)이 들어서서 각자의 독특한 활동을 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춘 스튜디오(4000㎡), 연구개발 실험실, 다목적 공연시설, 대규모 복합 전시관 등을 갖춰 각종 문화를 기획, 실험할 수 있다. 문화전당은 예술가들이 공연예술 작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아시아 문화유산의 디지털 자료 저장소(아카이브)를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 제작도 이뤄진다. 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한 저널, 포럼, 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생산 및 연구를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들을 조사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하는 작업도 한다. 시민들은 수집된 문화자원을 신개념 도서관인 ‘라이브리파크’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컬처 아시아’에서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시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은 1만6430㎡ 규모의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도 공연과 놀이기구, 아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물은 90% 이상이 최고 25m 지하에 조성돼 있고 건물 옥상은 도심공원이다. 옥상에 있는 70여 개 사각형 유리창인 채광창은 낮에는 햇살을 비추고, 밤에는 실내조명을 밝혀준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보는 이를 압도하는 화려하고 기념비적인 예술 공연장이나 전시관을 자랑하는 것과는 달리 아시아문화전당은 겉으로 보면 평지나 다름없어 보인다. 이는 이도시의 역사와 자연을 배

과 영웅과 악마들의 이야기가 넘쳐난다.

이처럼 풍성한 아시아의 문화를 음미하고 재창조하고 연구, 정리하고 예술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도시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의 광주광역시다.

광주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 한 복판에 단일 문화 예술공간으로는 아시아최대를 자랑하는 국립 아시

41



ACC 평화교류원의 내부 설치 작품. (ACC제공)



아시아 무용 커뮤니티 골든에이지의 공연 모습 (ACC제공)

려한 수준 높은 설계 때문이다. 광주는 1980년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도시다 수천명의 시민이 죽거나 부상당하며 독재를 거부했다. 그 중심장소는 전라남도 도청이었고, 그위치가 바로 현재의 아시아문화전당이다. 한국정부는 민주주의발전에 공헌한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지는 시민들의 희망을 존중해 도청건물을 헐지않고 아시아문화전당의 한복판에 위치하도록 했다.

또 아시아문화전당이 지상에 높게 솟구치지 않도록 지어진 이유는 광주시민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산 무등산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는 배려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11월 25일 개관했다. 준비에는 10년 이상이 걸렸다. 개관식에는 국무총리, 광주광역시장,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와 중앙아시아 5개국 문화장관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국무총리는 “광주는 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와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하공연은 화려했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10개국 악기로 구성된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가 웅장한 화음을 선보였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세계각국 대부분의 문화예술 시설이 자기도시나 국가의 문화융성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아시아 문화 공동체를 추구한다. 아시아 문화 예술인을 대상으로 레지던시(공동작업실 및 거주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도 국립 인디라간디 예술센터,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싱가포르 국립미술관 등과 협력사업도 벌인다.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를 계속 발전시키고 아시아무용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 스토리텔링 사업, 아셈 문화장관회의 등과의 교류 사업도 진행한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를 품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예술의 터전이라는데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세계를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나라와 도시들은 대부분 문화예술로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며 화제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한다. 그런 면에서 광주는 아시아의 스타급 도시, 즉 싱가포르와 홍콩을 경쟁상대로 보고 있다.

지난 1998년 홍콩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내걸고 '서구룡 문화지구'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WKCD)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홍콩의 야심을 말해주듯 부지가 40ha(12만평), 공사비만 3조원(216억 홍콩달러)에 이른다. 규모로 치자면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다. 홍콩의 명물인 빅토리아 항구를 바라 보고 있는 이 복합문화예술단지에는 203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아시아의 뉴욕현대미술관'을 표방한 M+미술

관과 다목적 전시장(1만5000석), 클래식 전용홀, 시추오페라극장 등 17개의 문화인프라와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무엇보다 지난 2011년 국제설계공모로 당선된 영국 건축회사 포스터+파트너스의 '도시안의 공원'(City Park)컨셉은 환상적이다. WKCD 인근의 19ha(5만7475평)에 5000그루의 수목과 각종 꽃들을 심는다는 발표는 국제 건축계의 핫 이슈가 됐다.

특히 WKCD는 위원회의 수장으로 마이클 린치(Michael Lynch·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대표)를, M+미술관의 총디렉터로 라스 니티브(Lars Nittive·영국 테이트모던 미술관 초대관장)를, 세계적인 프로듀서 루이스 유(Louis Yu)를 공연예술 감독으로 잇따라 영입해 화제를 뿌렸다. 이들 스타 군단이 빛어낼 콘텐츠의 파워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민주주의 역사가 영상작품으로 전시된 평화교류원 내부. (ACC제공)



ACC에서 공연된 중국 전통 일인극 '곤곡'작품 '아이헨릿'



싱가포르 역시 지난 1999년부터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Renaissance City Project) 일환으로 국립박물관을 리노베이션하고 낡은 국립도서관을 새로 짓는 등 대대적인 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인 에스플러네이드(Esplanade-Theatres on the bay)도 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였다. 싱가포르 도심 마리나 베이 인근 파당(Padang) 지구에서는 20세기 초 영국 강점기 랜드마크였던 옛 시청사와 바로 옆에 있는 돔 지붕의 대법원을 연결하는 내셔널 아트 갤러리(National Art Gallery·연면적 4만 8000㎡)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문화예술로 경쟁하고있는 아시아의 도시들은 그뿐만 아니다. 상하이, 베이징, 시안, 교토, 뭄바이등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문화예술관련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전통과 민속과 신화와 음악과 연극과 회화와 조각과 종교를 아울러 한곳에 모으려는 시도는 광주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유일하다.

예를 들어 아시아문화전당은 인도의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카자흐스탄의 무사 마마이 등 아시아의 신화와 설화를 공연물로 재창작한 '아시아 이야기'를 공연했다.

또 한국과 아세안 11개국 80명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의 아시아 전통악기 연주단인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를 가동하고 있다. 이 오케스트라는 한국의 '해금', 브루나이의 '굴링탕간', 캄보디아의 '트

를 소 토치', 필리핀의 '반두리아', 미얀마의 '사웅' 등 아시아 전통악기 55종으로 구성됐다. 오케스트라는 2009년에 창단한 이래 한국 내 아시아 문화의 이해 제고와 예술가 간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 문학작가, 무용수, 창작 공간 큐레이터 등 아시아 30개국에서 온 100명이 넘는 아시아 예술가들이 워크숍과 공동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5년 8월에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거울과 모니터'를 주제로 한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공동기획전시와 세미나를 열었다. 중국 중앙미술학원 카파미술관의 디렉터 왕충천과 짐 톰슨 아트센터의 디렉터 그리시야 가위왕, 대만 관두 미술관 공동 디렉터 우 다쿤, 한국 작가 배영환, 중국의 허연창, 대만의 야오 쥐청 등 20여 명의 저명한 기획자, 예술가 등이 참여했다.

광주시민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이 보다 왕성하게 아시아문화예술을 소개하고 작가들을 지원하여 광주의 거리에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인들이 넘쳐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과 무한정의 친절로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있다. **광주역창**

“중국은 아시아 콘텐츠의 보물창고 세계인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



아시아적 성격이 짙은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제작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세계 주요도시에서 공연, 전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콘텐츠 생산기구가 아시아문화원(Asia Culture Institute: ACI)이다. 한국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10월 설립한 준정부기관이다. 아시아문화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라 이브러리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인과 교류하며 문화 원형을 전문적으로 연구·수집하고 전시·공연·페스티벌 등의 문화콘텐츠로 창·제작해 그 결과물을 국내외에 유통하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독특한 기구의 대표는 저널리스트 출신 대학교수인 이기표 원장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문화예술 공연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열렸던 예술 이벤트를 중 중요한 것을 소개해주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단순히 공연·전시를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아시아의 각국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교류하며 문화자원을 수집·연구하고 전

시·공연 등의 콘텐츠로 만들어 세계에 유통하는 복합문화예술기관입니다.

2015년 개관 이후 2017년말까지 공연 133건, 전시 62건 등 344건의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아시아성을 담은 콘텐츠입니다. 동남아시아 11개국의 전통악기로 구성된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아시아 무용단, 아시아스토리텔링 사업, 아시아 창작공간네트워크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선보인 공연축제 프로그램 중 공동제작한제로 리:퍼블릭(사카구치 료헤), ‘열병의 방(아 피찻퐁 위라세타쿤), ‘만 마리의 호랑이(호추니엔)’ 등 16개 작품은 총 90여회에 걸쳐 국제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정치사회적 격변의 시대에 작가들이 어떻게 반응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베트남에서 베를린

까지> 전시를 통해 세계 25개국 51명의 작가들의 작품 170여점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공연이나 전시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관람자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중국 왕두 작가의 ‘승리!’라는 공공미술 작품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V자로 치켜 올린 손을 형상화한 7m 높이의 대형 조각작품으로, 작가는 광주를 희망과 승리의 도시로 표현하고자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V’포즈를 사용하여 무의식에 잠재된 행복을 드러냈습니다. 순백색은 아시아의 행복과 성공적인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개관 페스티벌로 중국국립극원이 참여한 <홍등기>와 다큐멘터리 감독 자오량의 <자오량 프로젝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홍등기는 중국국립극원 모범극의 전형적인 작품으로 전통 극극이 어떻게 현대로 계승되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자오량 스튜디오는 급속한 경제성장 이면의 중국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중국 전통 1인극 형태인 곤곡으로 만든 <아이 랬릿>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중국내 최고의 곤곡연기자인 <장준>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관객들은 ‘곤곡이라는 중국의 다소 생소한 전통극과 서양의 스토리가 만난 이색적인 경험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국의 창작공간들이 모여 교류하고 전시하는 ACC창작공간네트워크 사업에 중국의 투데이아트미술관과 타임즈미술관 등의 창작공간이 참가하는 등 중국의 문화예술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들이 진행됐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이 지금 개발중인 콘텐츠들 중에서 중국과 관련된 것 있나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 기능이 아시아문화

를 연구하고 아카이브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연·전시 등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원천소스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미미하나 중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집과 연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의 해양문화 장르의 스토리를 발굴해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아시아 표해사 현황 조사 및 자원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인 표류이야기를 심층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결과물은 대중교양서와 연구보고서로 제작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한국·중국·일본 3국의 상호교류를 통해 동양 연극의 미학적 기능을 탐구하기 위한 ‘베세토 페스티벌’이 10월1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중·일이 각각 2작품씩을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또 이웃한 세 나라의 연극 문화를 비교하며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매우 다양한 문화가 혼재해 있습니다. 그중 중국문화에 대해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시아에는 전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으며, 무궁무진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문화가 현대화되지 못하면서 여전히 서구 중심의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 문화의 역량을 발굴하고 엮어 창조적 문화콘텐츠로 생산하고 세계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오랜 전통과 무한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강한 자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수준이나 규모 또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문화 강국’입니다. 중국 관련 문화콘텐츠는 물론 아시아문화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중국 문화예술기관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상호 교류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역상**

‘중국몽’ 실현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대륙철도 연결로 한반도 동참해야

48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다. 좀 오래된 자료지만 2007년 중국 상위그룹 10%의 자산 소득이 하위그룹 10%의 23배나 된다(베이징사범대학). 이들의 소득격차는 10년 전인 1998년 7.3배에서 무려 16배나 늘었다. 앞으로도 이들의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독일 6.9배, 미국 15.9배보다 소득 격차가 훨씬 크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가치를 내세우는 사회주의 이념과는 맞지 않는 현실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오히려 사회주의인 중국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6월 제18차 당대회를 마치고 방문한 광둥성(广东省)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국의 큰 과제”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중국의 개혁개방 성공은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빈부격차는 지난 30년간 정신없이 달려온 개혁개방의 부작용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의 역사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949년부터 30년간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으로 갈등과 반목의 역사였다. 이후 30년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한 개혁개방 정책을 펴면서 그야말로 앞만 보고 달리는 시기였다. 개혁개방 정책의 결과 중국은 세계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미국에 이어 G2의 자리를 확고히 잡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댓가는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를 초래했다.

사회주의 최대 적은 빈부 격차다. 심각한 빈부 격

차는 오히려 모두가 다함께 잘 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 때문에 덩샤오핑은 1978년 중국의 빈부 격차가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민족갈등과 지역간 갈등, 계급 갈등이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또 중앙과 지방간에도 모순이 격화돼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 주석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다 같이 잘 살도록 하는 그 뭔가가 필요했다. 그는 2012년 ‘중국몽(中國夢)’이라는 화두를 내던졌다. 시 주석은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중국몽은 이후 시진핑 정권의 통치 이념으로 발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그동안 청사진에 불과했던 중국몽을 아주 구체화했다. 두 개의 ‘100년 중국몽’을 제시한 것이다. 첫번째 100년 중국몽은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 인민의 민생을 해결하고 기초 복지를 보장하는 이른바 ‘샤오강(小康) 사회’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하나의 100년 중국몽은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 문명화와 경제부흥으로 모든 인민들이 이상적 복지사회에서 살아가는 대동사회 건설하겠다는 약속이다.

이같은 중국몽 실현의 무대가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 · One belt, One road)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말한다. 일대

일로가 중국의 의도대로 구축되면 세계 경제는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육 · 해상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주변 국가들만 60여 개국에 이른다. 이들 개발도상국의 기초 인프라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중국의 의도다.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극대화해 이들 나라에 미치고 있는 미국의 확장 정책을 억제하려는 속내도 숨어있다. 고속철도망으로 이들 국가를 연결해 대규모 물류 허브와 에너지 기반시설 구축, 금융 통합 등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는 당초 야심찬 의도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시들어가는 ‘아메리칸 드림’의 자리를 ‘중국몽’으로 채워가고 있다. 중국몽이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결할 경우 새로운 발전 모델로 떠오를 것이다. 중국몽은 파키스탄의 꿈과 이집트의 꿈, 튀니지의 꿈, 리비아의 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중국 중심의 이같은 일대일대 정책에 다른 나라들이 반발하고 있다. 스리랑카와 몰디브, 라오스는 일대일로에 무리하게 참여하면서 중국에 막대한 빚을 지게 돼 주권 상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스리랑카는 지난해 12월 남부 합반토타 항만 운영권(99년)을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 머천트 포트홀딩스에 양도하면서 주권을 중국에 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아흔이 넘는 나이에 재집권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도 중국이 시행하는 동부해안철도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렇다면 시 주석의 국가 프로젝트인 일대일로가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는 한반도와 일본이 포함돼 있다. 일대일로에서 육로의 연결 고리는 철도다. 최근 한반도에 평화와 교류의 훈풍이 불면서 부산과 목포를 기점으로 한 철도 레일이 북한을 거쳐 유라시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유라시아 대륙 철도운영국 협의체인 국제철도 협력기구에 정회원으로 가입했

다. 당연히 중국 일대일로의 무대인 TCR(중국횡단철도)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MGR(몽골종단철도)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와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남북 철도망만 연결되면 유아시아 철도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철도는 중국과 3개 노선, 러시아와 1개 노선이 각각 연결돼 있다. 경의선은 신의주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TCR과 연결돼 있다. 동해북부선은 나진~하산을 거쳐 TSR에 닿아있다. 우리의 철도가 경의선과 동해북부선에 연결되면 한국은 TCR과 TSR에 자동으로 이어진다.

남북철도의 연결이 가능한 노선은 경의선과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등 4개다. 최근 판문점 선언에서는 경의선과 동해북부선의 연결을 논의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TSR의 경우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양주~원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모스크바~독일 베를린~프랑스~영국까지 7시간이면 갈 수 있다. TCR는 남북의 경의선 라인과 연결돼 있다. 파주에서 개성을 거쳐 신의주~중국~러시아 모스크바~터키로 연결된다.

국제사회의 흐름이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베이징 컨센서스’로 이동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회담의 속도와 전망도 사실상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을 정도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돼 있는 이상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국가 브랜드인 중국몽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중국몽의 거대한 흐름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광주의향**



한현목
약력/ 전남대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졸(1993)
전남일보 사회부 차장(2012)
세계일보 사회2부 부장(2018)
저서/ 아홉가지 테마로 떠나는 중국문화기행
2006년, 심미안

49



광주는 어떤 도시?

인구 146만명

면적 501km²

행정구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개 자치구

위치 한반도 서남부 평야지대, 영산강 상류.

기후 연평균기온 13.5℃, 1월 최저기온 영하 5도 내외
8월 최고기온 31도 내외 강수량 연평균 1,367mm
연강수일수는 120일 내외.

지위 대한민국 5대 도시, 호남지방 최대도시

연혁

- BC 1세기 백제왕국시대 무진주
- 8세기 신라 9주의 한곳
- 10세기 고려 태조대에 광주로 개칭
- 17세기 조선 인조대 광주목으로 승격
- 1896년 전국 13개 도 개편시 전라남도의 도청소재지로 지정
- 1986년 광주직할시로 승격, 전라남도와 분리
- 1995년 광주광역시로 개칭

산업 자동차 전자 반도체 광산업 타이어 농수산물유통

교육기관

초등학교 153개, 중학교 89개, 고등학교 67개 전문대학(2~3
년제) 6개, 대학교 (4년~6년제) 10개

교통

- 철도 : 호남선 전라선 고속철도(KTX)
- 육운 :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광주무안고속도로
- 항공 : 광주공항(국내선) 무안국제공항(국제선)
- 대중교통 : 지하철 1개노선(2025년 2호선 개통)
시내버스110개 노선

공공도서관 12개

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등 5개.

방송국 한국방송공사(KBS) · 문화방송(MBC) · 기독교방송
(CBS) · 광주방송(KBC) 등 7개

신문사 광주일보 · 전남일보 · 무등일보 등 7개

유통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백화점 2개, 쇼핑몰 6개,
전통시장 15개

스포츠

- 프로축구팀 : 피닉스 광주FC(K리그 클래식 중하위권)
- 프로야구팀 : 기아타이거즈
(코리안 시리즈 11회 우승 KBO리그 최상위권)

FRINGE festival

4월 7일 개막

4월-11월 매주 토요일 14:00-19:00
금남로, 5·18 민주광장 일원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사무국
Tel. 062 223 0410
<http://fringefestival.kr/>

비범한 상상

프린지페스티벌 가족
'최주환', '박소은'이 그린 작품입니다.

토요일엔 누구나 풍류처사가 된다

무등산 자락 누정에서 옛 선비의 멋과 풍류를 만나는 기회!



2018. 5.~10.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광주북구와 담양지역 무등산 일대, 누정·가사문화관



미션 수행 시
상품도 드려요

선비풍류 미션 나들이

식영정

식영인문학당
(1, 3, 5주 토요일 3시)

식영풍류도원
(서화, 다례, 탁본, 선비복 체험)

환벽당

환벽추구학당
환벽책애(애)서
(서책, 서포, 수묵화, 국궁체험)

성산계류탁열도
(7월 28일)

취가정

나는 김덕령이다
취가화전놀이
낙관만들기

소새원

생소한 소새원 48영 재연행사
(2, 4주 토요일 2시)